

선택행위를 통한 자아확립의 매개로서 현대주거에 관한 연구 - ‘온라인집들이’의 서사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ousing as Medium between the Self-establishment and the Selection - Focused on Narrative Structure of ‘Online-housewarming’ -

허 은 석* 조 항 만**
Hur, Eun-Seok Zo, Hangman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ocess of the housing reflecting the self, based on the qualitative data that people describe their thoughts about their housing in social media 'online-housewarming'. Especially, based on the precedent study that modern self is established on continuous selection behavior, we focused on the selection behavior of the self and the role of the housing that affected it through the narrative. Each narrative component corresponds to the self-establishment process of modern people, identified through precedent study. We can confirm the existing internal criteria changing into new internal criteria through accumulation, interact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of selection by housing. Housing has been involved in the selection behavior of self throughout the narrative. From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thought of the self and housing are identified in three ways. In 'Online-Housewarming', (1) Housing equates with the self, in the sense that housing is a physical entity in which one's own choices are accumulated (2) People perceive the change of choice caused by the realistic constraints of housing as their interaction with housing. (3) People relate the opinions of others about housing with the opinions about their own self. In contemporary society, house reforming process is a process of mediating the self and the external world based on the selection behavior and affects the establishment of self.

키워드 : 자아, 주거, 매개, 선택, 1인 가구, 현대주거, 서사구조, 소셜미디어

Keywords : Ego, Self, Housing, Medium, One-person Household, Contemporary Housing, Narrative Structure, Social Media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은 자신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주거공간에 자신의 생활방식을 반영하고, 또 주거공간에 의해 자신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Kim, 1993; Sohn, 1990) 이런 과정은 인간이 자아에 구체적 실체를 부여하고자 하는 욕구와 맞물려 주거공간을 자아의 확장으로 여기도록 한다.(Cooper, 1974) 자아의 확장인 주거공간을 외부세계에 드러내는 행위는 자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Kim, 1993) 이때 주거공간은 당시 사회에서 관례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상징 등의 비언어적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지위, 그리고 가치관에 관한 메시지를 외부세계에 전달할 수 있다.(Lang, 1987)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의 자아가 연속적인 선택행위를 기반으로 확립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주거가 자아를 반영하고 외부세계에 드러내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예전부터 주거가 자아의 표현이라는 입장은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철학적인 맥락에서 주거와 자아의 관계를 정의하고 파악하고자 하였다.(Chu, 1986; Sohn, 1990; Kim, 1993) 이 때문에 자아가 주거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과정은 연구되지 않았으며, 자아와 주거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아와 주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와 관련된 현대인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이는 ‘온라인집들이’ 게시물의 서사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온라인집들이’는 개인이 자신의 사적인 주거공간을 타인들에게 자유롭게 소개하고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형식의 소셜미디어이다.1)

*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 서울대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석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zohangman@snu.ac.kr)

1) ‘온라인집들이’는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로, <https://ohou.se/projects>로 접속할 수 있다. ‘온라인집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다루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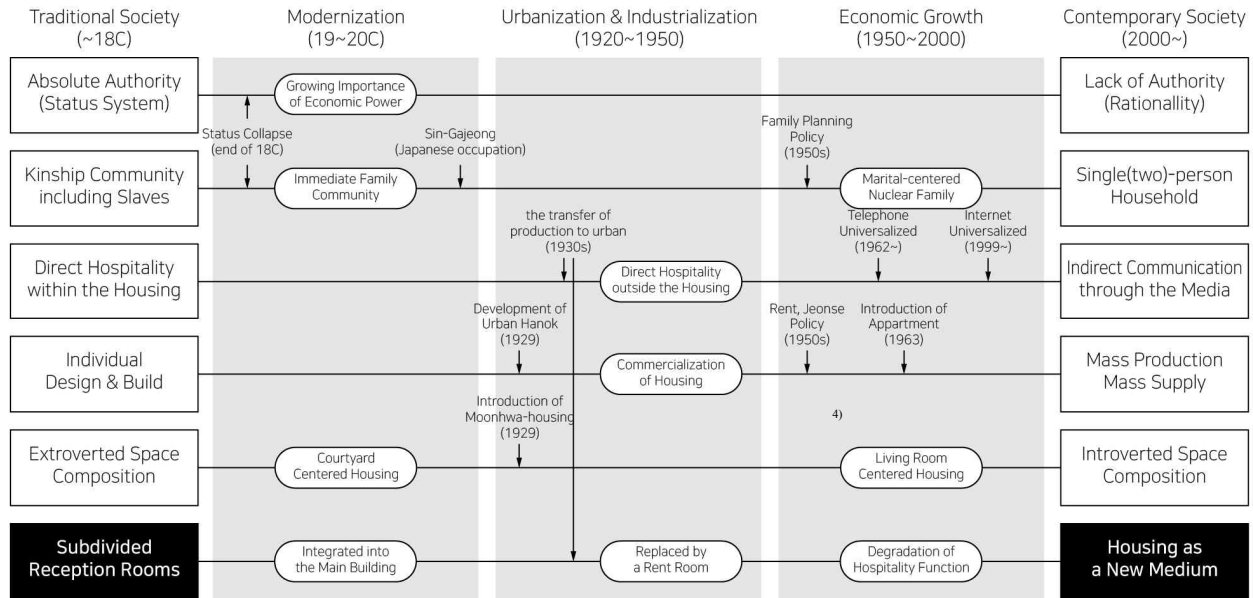


Figure 1. Changes on the characteristic of ego and housing according to the times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집들이 게시물을 통해 현대인이 주거를 활용하고 타인에게 드러내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게시물이 유사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사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자아의 확장으로 여겨지는 주거공간에 선택행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현대인의 자아가 어떻게 반영되고 상호작용하지 규명한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인에게 주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의 주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1.2 주거 내 접객공간을 통한 전통적 자아확립 방식의 해체

전통사회에서는 사적 공간인 주거에 사랑채와 같은 접객공간을 두고 초대를 통해 타인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일반적인 주거 형태에서는 접객공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타인을 주거에 초대해 접객하는 행위도 점점 부담스럽게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주거에 자아를 반영하고 타인에게 드러내는 방식이, 전통사회에서 이루어지던 접객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자아와 주거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가족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위이자 기준이었으며, 따라서 전통 사회의 개인은 집단적 자아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²⁾(Ha, 2002) 사대부주택의 접객공간은 성별에 따라

2)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아에 대해 전통 사회의 자아를 집단적 자아, 현대 사회의 자아를 개인적 자아로 설정하였다. 집단적 자아는 관계성, 소속감, 집단성을 기반으로 형성된다.(Trafimow et al., 1991; Park, 2014)

남과 여의 공간이 구분되고, 지위상의 높고 낮음이 구분되고, 생과 사가 구분되고³⁾, 혈족과 외부인의 공간이 구분되었다.(Jeong, 2003) 세세하게 구분된 접객공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외부세계의 상하관계를 드러내고 구분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자아의 위치와 존재를 확인하도록 한다.

접객공간을 중심으로 주거가 자아와 외부세계를 매개 하던 방식은 근대화과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와해되었으며, 주요한 변화 요인들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이어지는 문단과 Figure 1. 참조)

①18-19세기,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신분보다는 경제력에 의해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게 되었다. 이는 혈족공동체를 직계가족 중심의 가족공동체로 축소시켰고, 이와 함께 접객공간도 축소되었다.(Park, 2003; Lee, 2001) ②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가족개념의 확산으로 소규모 핵가족이 지배적인 가족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Cho, 1997; Lim, 1994) 현재는 1,2인가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Lee, 2002)⁵⁾ ③193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고, 주거 내부에서 이루어지던 접객행위 또한 주거 외부로 이동하였다.(Yoo, 2002)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간접적인 소통과 표현이 가능하게 되면서

3) Jeong(2003)은 사대부주택 내의 사당을 접객공간으로서 설명하였는데, 이는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혈족 구성원인 조상을 접대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4) 현대 전세제도는 한국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등장하여 1970년대 이후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 3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5) 통계청이 KOSIS(<http://kosis.kr>)에서 제공하는 인구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인가구는 5,618,677가구로 전체 20,167,922가구의 28.6%이다. 2000년 15.5%, 2005년 20.0%, 2010년 23.9%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집객기능은 거의 퇴화되었다.(Kim, 2006) ④1930년대 초, 도시형 한옥의 개발을 통해,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Song, 1990) 이로 인해 주거는 필요에 따라 거래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임시적인 거처로써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⑥ ⑤내향적 공간구성으로 주거 형태가 변화하면서 외부와의 관계가 약화되었다. 1929년 처음 선보인 문화주택은, 195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보급되었는데, 집객위주의 외향적 공간을 버리고 가족 중심의 내향적 공간을 지향하였다.⑦ 내향적 공간은 아파트와 결합되어 더욱 강화되었다.(Jeon, 2012; Jeon, 2010)

선행연구를 통해 전통사회에서 집객공간은 혈족 구성원으로써 외부의 다른 집단과 상하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아를 확립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아확립 방식은 집단적 자아가 개인적 자아로 변화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주거의 규모가 축소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1.3 현대사회의 자아확립 방식에 관한 선행연구

현대사회에서는 선택의 주체로서 개인적 자아가 강조되고, 연속된 선택상황 속에서 개인이 내적준거를 형성하는 과정이 자아확립 과정으로 여겨진다.(Bauman, 2000; Giddens, 1991) 전통사회에서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신분과 가문에 의해 귀속적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는 단일 경험의 세계이다. 반면 현대사회에서는 절대적 권위가 사라지고, 시간과 공간이 혼재됨에 따라 복수의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대사회의 자아는 의존할 수 있는 영속적 기반을 잃어버리고 선택의 책임에 대해 계속해서 불안과 위협을 느낀다.(Bauman, 2000) 현대인의 자아는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신의 내부적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기든스의 경우 내부적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성찰적 기획이라 정의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을 소비영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일상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선택의 결과라고 설명한다.(Giddens, 1991) 기든스의 라이프스타일은 자아 정체성을 기반으로 일어난 선택의 결과인 동시에 자아정체성을 구성하고 수정하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6) 하지만 대량 공급된 주택의 경우, 제한된 선택지 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평면을 골라 그 속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기에 경제적인 요인, 전/월세 제도 등의 제약이 더해져 거주자가 원하는 공간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7) Jeon(2012)의 단행본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어진 대규모 공영단독주택지는 문화주택을 그 원형으로 하고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불광동 재건축주택(1956)과 북가좌동 국민주택(1958), 구로동 국민주택단지(1961) 등이 있다. 마당은 마루로 대체되고, 실내화 되면서 거실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거실과 이어진 현관이 도입되면서 현관에서 거실을 통해 방으로 가는 공간구조가 강화되고 외부와의 관계는 미약해졌다.

보드리야르의 경우, 인간은 소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물이 기능적 의미와 함께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상징적 의미는 사회가 사물에 부여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사물을 선택하고 소비함으로써 상징적 의미를 얻게 된다. 상징적 의미는 기호로써 구매자의 사회적 위치와 가치관을 드러내고 타인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Baudrillard, 1970) 타인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며, 선택과 소비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이 된다.

현대사회에서 자아는 끊임없는 선택 상황 속에서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주체라면, 외부세계는 자아에게 계속해서 현실적 제약과 정보를 주는 환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거는 자아가 선택에 관한 내적준거를 구축하도록 외부세계와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Table 1. 참조) 주거공간을 통해 매개된 선택은 자신과 외부세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아가 확립되는 데에 영향을 준다.

Table 1. Definition of ego and external world in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society

	Traditional Society	Contemporary Society
Self	Collective ego (part of a kinship community)	Individual ego (subject of selection)
External world	Other kinship (in different class and region)	Consecutive situation of selection (Restriction & Information)
Establishment of self	Differentiating self from others	Creating one's own criteria of selection
Housing as medium	Subdivided reception room	Place of mediation between self and selections

2. 본 론

2.1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사적인 주거공간을 타인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현대인들이 자신의 주거를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고 주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현대인들은 주거와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선택 상황들에 있어서 가격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외부로부터 얻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한다. 현대사회의 주거는 현실적 제약과 끊임없이 주어지는 정보 속에서 연속적인 선택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현대인의 자아가 형성되고 수정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테리어 정보 플랫폼 ‘오늘의 집’을 통해 공유되는 ‘온라인집들이’ 게시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온라인집들이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거공간을 공개하고 주거공간에 얽힌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현관에서부터 거실, 침실 등 주거 전반

에 걸쳐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짧고 분절된 글로 생각을 전달하는 타 소셜미디어에 비해 주거에 얽힌 전반적인 생각과 공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집들이’ 게시물의 댓글을 제외한 본문만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소셜미디어에서 댓글을 통한 타인과의 양방향적 소통이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만큼, 그 양이 방대하여 본문과 댓글을 모두 다루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온라인집들이의 본문에는 게시물이 작성되기 이전에 현실에서 이루어진 홈파티, 집들이 등 타인과의 양방향적인 소통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현대인의 자아와 주거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 댓글을 통한 양방향적 소통에 관한 연구는 후속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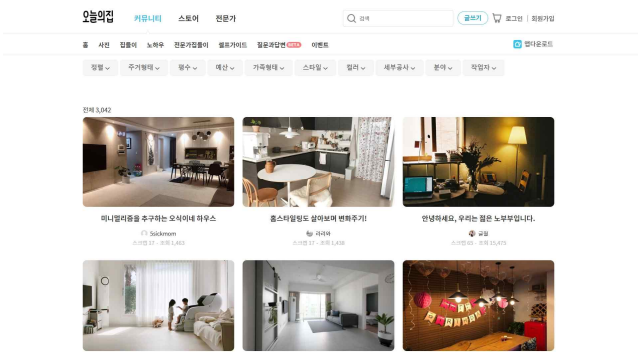


Figure 2. Website of 'Online-Housewarming'

온라인집들이의 본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글에서 유사한 서사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과거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현재의 주거공간의 수정 전후를 비교하며 공간별로 자신의 의도를 설명한다. 온라인집들이의 서사는 각 문단마다 이해를 돕는 자세한 사진들과 함께 이어지는데, 침실, 화장실과 같은 사적공간까지 거의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 이때 온라인집들이는 주거공간을 가꾸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거공간에 포함된 다양한 요소들의 선택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구매 정보를 공유한다. 마지막에는 주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주거공간 가꾸기 이후 변화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다.

온라인집들이의 경우 한국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글쓴이의 성별, 직업, 나이, 주택형태, 면적 등의 데이터가 선택적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온라인집들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서사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나타나는 현대사회의 주거와 자아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특성을 규명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문의 텍스트에 주목하였으며, 물리적 환경이나 데이터와의 분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들은 실험자에 의해 임의로 선택된 표본들이 인터뷰, 설문조사와 같은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의 경우 특정 관심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제공, 수집된

정보들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표본이 특정 계층 혹은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대변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대 주거의 새로운 경향과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온라인집들이’ 서사구조 분석 - 서사 구성요소 분석

본 연구는 온라인집들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서사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자아의 확장으로 여겨지는 주거공간에 선택행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현대인의 자아가 어떻게 반영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집들이의 ‘싱글라이프’ 카테고리 속 407개의 게시물 중⁸⁾ 인기글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47개의 사례를 문장단위로 분석하였다.⁹⁾ 가족구성원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아와 주거의 직접적인 관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대상을 개인(‘싱글라이프’ 카테고리)으로 한정하였다. 인기글은 게시물의 조회 수, 추천 수, 댓글 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전산으로 선정된 게시물로, 온라인집들이 게시물 중 영향력이 크고 대표성을 가지는 게시물이라 할 수 있다.

서사구조 분석을 통해 온라인집들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서사 구성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현대인의 선택행위와 연관지어 구성요소들을 분류할 수 있었다.

(1) 가꾸기 이전의 인식과 경험

온라인집들이에서는 이야기 전반에 걸쳐 기존의 자아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진다.(Table 2.의 (1) 부분) 이는 기존의 자아가 가진 내적준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택행위가 이루어진다.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에서 개입되는 현실적 제약과 정보 등에 의해 기존의 자아가 변화를 겪는 과정이 온라인집들이 서사의 주된 구조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직업, 생활방식 등의 배경을 설명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취향과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¹⁰⁾ 현재의 주거공간을 가지기 이전의 자신의

8) 2019.02.01.까지 총 3063개의 ‘온라인집들이’가 있다. 전문가가 작성한 게시물을 제외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1765개의 게시물 중 ‘싱글라이프’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407개이다.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인기글 47개를 선정하였다. 47번째 게시물 이후에서는 추천 및 댓글 수가 크게 떨어져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9) 각주를 통해 필요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집들이’에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례 문장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 문장, (프로젝트 번호)’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프로젝트 번호는 개인이 올린 ‘온라인집들이’에 전산으로 부여되는 번호이며, [https://ohou.se/projects/\(프로젝트 번호\)](https://ohou.se/projects/(프로젝트 번호))를 입력하면 원문에 접속할 수 있다.

10) ‘올해 한 살이 된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 집사입니다.’ (7389), ‘저는 울산에서 활동 중인 국악인입니다. 원룸에서 살다가 개인 연습 공간이 필요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7847), ‘저는 빈티지, 레트로를 너무나 좋아하는 자취 5

인식을 제시하거나, 과거의 주거에서 겪었던 경험을 제시하기도 한다.¹¹⁾

(2) 현실적 제약과 정보

선행연구에서 자아를 규정하는 외부세계를 선택상황을 이야기하는 제약과 정보로 정의했듯이, 온라인 집들이에서도 현실적 제약과 정보로 대표되는 외부세계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의 (2) 부분) 이는 선택행위에 제약을 가하거나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자아가 가진 내적준거를 수정하도록 하는 주된 계기가 되었음을 다음 장에 이어질 서사구조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집들이에서 주어지는 제약은 현 주거 환경으로, 온전한 자신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극복되어야 될 대상으로서 제시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파악한 주거의 변화 과정 중 주거가 대량생산, 공급의 대상으로 변화되면서 비롯된 한계점으로, 맞춤형가와 수정불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맞춤형가의 경우, 자신의 생활방식과 맞지 않는 공간 구성, ‘웁션’, 내부 마감 등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룬다.¹²⁾ 수정불가의 경우, 월세, 전세 등의 불완전한 소유권과 관련된 주택공급 제도에 기인하며, 자신의 의도대로 공간을 완전히 수정하지 못하는 경우이다.¹³⁾

온라인집들이에서 주어지는 정보는 주거를 매개로 온, 오프라인에서 타인과 교류를 통해 얻게 된다. 타인의 온라인집들을 통해 얻은 정보와, 집들이나 홈파티와 같은 타인을 집으로 직접 초대하는 경험을 포함한다.¹⁴⁾

(3)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

온라인집들이에서는 자신의 주거를 수정 전과 후로 나누어서, 자신의 선택행위를 통해 주거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묘사하는 서사방식이 주를 이룬다. 완성

된 주거공간이 아닌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을 중심으로 온라인 집들이를 서술하는 모습을 통해, 온라인집들이 글쓴이들은 가꾸기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행위를 타인과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공간 가꾸기는 글쓴이의 선택행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며, 공간 재정의, 라이프스타일 구상, 상징 및 이미지 채택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Table 2.의 (3) 부분)

첫째, 공간 재정의 단계에서는 기성주택을 자신의 생활 방식에 적합하게 가꾸기 위해 필요에 따라 주어진 공간을 새롭게 명명한다. 기존에 거실, 침실 등으로 명명된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문이나 벽 일부를 제거해 방을 트거나, 가벽을 이용해 분절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 카페, 시어터, 수영장 등과 같은 통상적인 주거가 포함하지 않았던 명명을 선택하기도 한다.¹⁵⁾ 선행연구에서 현대사회는 절대적 권위가 사라짐에 따라 개인의 이성적 판단이 모든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라이프스타일 구상의 단계에서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주거공간에서 일어날 구체적인 행위를 계획한다. 재정의된 주거공간을 바탕으로 자신이 의도한 생활 방식에 맞게 가구의 종류와 배치를 선택하는 과정이다.¹⁶⁾ 내적준거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은 선행연구에서 기든스가 주장했던 현대인의 특성 중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성찰적 기획을 한다는 점과 일치한다.

셋째, 상징 및 이미지 채택의 단계에서는 주거공간의 분위기와 기능 외적인 요소를 자신이 선택한 기성제품들의 조합으로 구성한다.¹⁷⁾ 이때 가구와 소품은 선행연구에서 보드리야르의 주장처럼 기능적 의미 외에도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특정 소품들이 서로 다른 온라인집들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서로 비슷한 특정 의미를 연결시키는 것을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다.

년 차 뚜쟁입니다!’ (7054)

11) ‘그동안 5번의 이사를 통해 저에게 맞는 집에 대해 생각도 많이 해보고, (중략) 집을 잘 고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7306), ‘혼자 처음으로 집을 구해보는 탓에 멧모르고 학교 인근 3평정도 되는 썩 고시텔을 구했어요.’ (7746), ‘허무한 서울 생활에 어딘가 마음이 허했는데 웬지 이곳으로 이사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7389)

12) ‘방이 너무 커서 그런지 집 크기에 비해 화장실이 작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7847), ‘제가 짐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곳은 짐을 수납할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테라스가 너무 맘에 들어서 결정은 했지만 고민이 많았지요.’ (7306), ‘마침 딱 마음에 드는 수납공간을 가진 원룸을 찾게 되었지만, 벽지 색이나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저의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7054)

13) ‘도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실크벽지에 또 페인트칠을 하자니 번거롭기도 하고 전세집이라 곤란하기도 해서 고민을 하다가’ (7847), ‘2년뒤에 다시 이사를 가게 될지도 모르니 괜히 짐 늘리지 말자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7306), ‘1년 뒤 또 이사갈 지도 모르는데 전체 다 칠하기는 아까워서요...’ (7828)

14) ‘지인들이 놀러 오면 커피나 차를 만들어 마시는데요, 편한 카페에 놀러 온 것 같다며 지인들이 말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8337), ‘그럴 땐 이 집을 좋아해 줄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을 초대해서 함께 공간을 즐기면서 우울함을 극복하고 있답니다.’ (7055), ‘친구들은 저희 집을 보고 가본적도 없는 대만 느낌이 많이 난다고 해 주는데,’ (2922)

15) ‘소파가 있는 영화방이에요. 보통 거실이라고는 하지만 혼자 사는 저에겐 제 모든 취향과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 있는 서재 같은 곳이에요.’ (7055), ‘불박이장이 있는 이곳을 대부분 침실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전 공간에 충실하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꾸몄어요.’ (7476), ‘집을 휴양지로 만들어보자고 생각했어요! 테라스에 풀장이!’ (7306)

16) ‘앉아서 TV를 보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겐 맞춤형 휴식공간이에요. 침대 위 공간을 활용해 빔프로젝터로 영화를 보고는 해요.’ (7744), ‘제가 컴퓨터로 작업하는 전공이다 보니 작업실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죠! 멀티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원형 테이블!’ (4774), 이 곳을 보자마자 북카페를 만들면 딱 좋겠다 싶었죠. 아래엔 책을 두고 위에는 커피를 마시는 공간으로요! (4588)

17)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포스터가 붙어있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 붙어있기도 해요.’ (7601), ‘여름 휴양지를 갈 때마다 만끽하는 휴식의 느낌을 줌의 공간인 집에다 접목하고 싶었어요.’ (7627), ‘제 이미지와 어울리는 색으로 칠하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날 생각하면 무슨 색이 떠올라?’ 라고 물어봤는데 핑크색이라고 하더라고요.’ (3117)

18) ‘온라인집들이’에서 규모의 단위는 평으로 되어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Table 1의 규모는 1평을 3.3m²로 하여 환산한 값을 표기하였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narrative elements in 'Online-housewarming'

Case of 'Online Housewarming'				(1) Pre-introspection		(2) Constraints and Informations		(3) House reforming process			(4) Re-introspection		
Project ID	Title	Housing type	Size (m ²) 18)	Thought on pre-existing self	Experience from last housing	Present housing condition		Comments and Informations	Redefine space	Lifestyle setting	Adopt image and signs	Thought on housing	Establish or re-establish self
						Unable to customize	Unable to modify						
2630	"남은 것들이 어울려 평화로운 집"	townhouse	33.0	●				●	●	●	●	●	●
2922	우리가 오래된 빌라를 좋아하는 이유	townhouse	33.0	●	●	●		●	●	●	●	●	
3100	서울 한복판에서도 시간이 천천히 흐를 수 있다면	townhouse	33.0	●	●	●			●	●	●	●	
3101	"사람들이 전셋집에 왜 돈/시간을 쓰냐고 하더라고요"	townhouse	52.8	●		●	●	●	●	●	●	●	
3117	빈티지와 사랑스러움 그 사이 #15평_투룸빌라	townhouse	49.5	●	●	●	●	●	●	●	●	●	●
3751	세월을 함께 보낼 가구를 원룸을 채우는 일	one-room	33.0	●	●	●	●	●	●	●	●	●	●
3913	집순이의 알찬 공간을 소개합니다!	townhouse	33.0	●		●	●			●	●	●	
4580	계절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집	one-room	66.0	●						●	●	●	
4588	복층, 텀테이블, 빔프로젝터까지! 자취로망 100%실현	one-room	33.0	●		●		●	●	●	●	●	●
4638	삭막하던 서울살이에 온기를 불어넣어 준 집	one-room	33.0	●			●		●	●	●	●	
4728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돌아온 서울	townhouse	33.0	●		●	●			●	●	●	
4774	작은 공간을 나만의 색으로 채우는 법	one-room	33.0	●	●	●		●		●	●	●	
4775	포인트 컬러의 벽지가 매력적인 집	one-room	33.0	●		●	●	●		●	●	●	
4787	매일 예쁜 공간을 마주한다는 것	one-room	33.0	●	●	●			●	●	●	●	
5487	글 쓰는 마케터의 집에는 영화, 음악, 만화책이 있어요	townhouse	33.0	●	●	●	●	●	●	●	●	●	
7054	신축 원룸이 빈티지 감성을 머금은 공간으로 바뀌다	townhouse	33.0	●	●	●		●		●	●	●	
7055	세월과 현재가 공존하는 해방촌에 산다는 것	townhouse	39.6	●	●	●		●	●	●	●	●	
7295	컬러감이 매력적인 일러스트레이터 znsoul의 집	townhouse	42.9	●		●	●		●	●	●	●	
7306	테라스를 휴양지로 바꿔버린 여성복 디자이너의 집	townhouse	42.9	●	●	●	●	●	●	●	●	●	
7381	드디어 집의 가능성을 알아본 10년차 프로자취러	one-room	29.7	●	●	●		●		●	●	●	
7389	매력적인 소품들로 채워진 12평 오피스텔	one-room	39.6	●	●	●		●		●	●	●	
7408	서울살이 4년, 인테리어 로망을 펼칠 복층을 만났다	one-room	26.4	●	●	●		●		●	●	●	
7476	스카이블루로 포인트를 준 엔틱한 집	townhouse	165	●		●			●	●	●	●	
7478	플랜테리어로 완성된 디자이너의 집	townhouse	23.1	●	●	●			●	●	●	●	●
7567	최소한의 비용으로 꾸민 애정 가득한 집	one-room	23.1	●	●	●	●			●	●	●	●
7601	화이트와 브라운의 조화가 매력적인 집	one-room	23.1	●		●			●		●	●	
7603	구석구석 취향으로 가득 채운 복층 인테리어	one-room	29.7	●		●				●	●	●	●
7627	에스닉한 소품으로 꾸민, 휴식하기 좋은 집	one-room	23.1	●		●			●	●	●	●	
7709	가장 ناد운 곳에서, 새로움을 꿈꾸다	one-room	26.4	●		●		●		●	●	●	●
7739	나만의 분위기가 듬뿍 묻어난 곳, 7평 원룸	one-room	23.1	●		●		●		●	●	●	
7746	나를 찾게 해준 공간 #원룸을투룸같이	one-room	26.4	●	●	●		●	●	●	●	●	●
7823	이런 낭이가 있는 집이라면, 매일이 행복하겠어!	one-room	46.2	●		●				●	●	●	
7828	타인의 기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귀 기울여서.	one-room	39.6	●	●	●	●		●	●	●	●	●
7847	한계, 몰랐던 내 취향을 발견하게 해주는 터닝포인트	townhouse	42.9	●	●	●	●	●	●	●	●	●	●
7918	"저 독신 아니에요. 강아지와 같이 살고 있어요."	one-room	49.5	●	●	●			●	●	●	●	
7929	집들이만 66번째	one-room	29.7	●				●		●	●	●	●
8012	공간에서 영감을 받고, 다시 공간에 영향을 주는 어른이	apartment	49.5	●		●		●	●	●	●	●	
8019	망원과 합정 사이, 반려묘 두 마리와 함께하는 집	townhouse	33.0	●		●			●	●	●	●	
8050	오랜 자취생활을 지나 마음을 줄 집을 가꾸는 요즘	one-room	39.6	●	●	●				●	●	●	
8094	취미와 취향으로 빛은 내 작은 공간	one-room	19.8	●		●				●	●	●	●
8095	혼자일 때도,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도 집은 소중하니까.	townhouse	46.2	●		●		●	●	●	●	●	
8127	따뜻함과 포근함을 가득 담은 나의 8평 오피스텔	one-room	26.4	●	●	●			●	●	●	●	●
8158	빈티지가구와 리폼으로 만든 아늑한 빌라	townhouse	39.6	●	●	●	●	●		●	●	●	●
8221	눈길에 닿는 곳 전부 내 취향인 7평 원룸	one-room	23.1	●	●	●	●	●		●	●	●	
8227	삼삼하고 따뜻하게.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곳	townhouse	42.9	●		●		●	●	●	●	●	●
8325	독립 한 달 차, 풋풋한 자취 새내기 12평 오피스텔	one-room	39.6	●		●		●	●	●	●	●	●
8337	오래된 주택 2층에서 작업공간과 집을 하나로!	single-fam	42.9	●		●	●	●	●	●	●	●	
Total	47	Corresponding Samples (Ratio(%))		47 (100)	25 (53.2)	43 (91.5)	16 (34.0)	27 (57.4)	28 (59.6)	46 (97.9)	47 (100)	47 (100)	17 (36.2)

(4) 가꾸기 이후의 변화된 인식

온라인집들이의 결론에서는 주거공간 가꾸기를 통해 자신과 주거에 대해 변화된 생각이 제시된다. 기존의 자아가 가졌던 내적준거가 제약과 정보 속에서 연속된 선택행위를 거치면서, 강화되거나 새로운 기준으로 변화되었음을 제시한다.(Table 2.의 (4) 부분) 변화된 내적준거는 단순히 주거에 대한 생각으로 여겨지기도 하고¹⁹⁾, 삶의 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²⁰⁾ 이는 선행연구에서 현대인의 자아가 연속적인 선택행위를 통해 형성된 내적준거를 바탕으로 확립되는 것을 뒷받침한다.

온라인집들이에서 드러난 자아와 주거에 대한 생각은, 선택행위가 강화되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주거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에 의해 도출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2.3 ‘온라인집들이’ 서사구조 분석 - 서사 구성요소간의 관계 분석

온라인집들이에서 서사 구성요소들은 모두 자아의 선택행위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었다. 기존의 내적준거(가꾸기 이전의 인식과 경험)에 따른 선택행위가 외부세계의 개입(현실적 제약과 정보)으로 인해 강화되거나 변화되어(주거공간 가꾸기), 새로운 내적준거(가꾸기 이후의 변화된 인식)를 정립하게 된다. 이 과정을 바탕으로 각 사례의 주요 서사 구성요소를 배치하고, 각 요소들을 인과관계에 따라 연결하였다.(Figure 3, 4, 5, 6)

‘사례 1’²¹⁾ (Figure 3. 참조)의 글쓴이는 ‘소품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소품의 스타일을 주거에 적용’이라는 선택을 한다. 주거 전반에 반영된 선택의 결과를 통해 글쓴이는 ‘주거는 변화하는 자신과 변화하지 않는 자신을 확인하는 공간’이라는 결론에 이르며, 선택의 축적을 바탕으로 주거와 자신을 동일시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능에 따라 구분된 공간에 대한 선호’라는 기존의 생각은 ‘열린 공간’과 ‘전세’라는 제약에 의해 ‘방을 가구로 나눔’ 등 선택의 변화로 이어진다. 선택의 변화는 ‘주거는 살아가면서 나에 맞게 맞춰가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며, 주거와 자신을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파악한다.

19) ‘집은 온전히 나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7627), ‘제가 변하는 것처럼 집도 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지금도 조금씩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고 있고요.’ (7828), ‘집은 세상에서 저를 품어주는 가장 따뜻하고 유일한 공간이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집에 들어오면 안심하게 되니까요.’ (7389), ‘집이라는 공간은 편안하면서 때로는 특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7306)

20) ‘제 자신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을 꾸미면서 몰랐던 제 취향도 발견하고 제가 더 다듬어지는 느낌이었어요.’ (3117), ‘하지만 저는 행복은 적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4588), ‘나 혼자 사는 세상과 혼자 살지만 혼자 살지 않는 세상을 적절히 병행해가며 홀로 또 같이 반복해가는 것이 인생이고, 이 집에서 살며 느낀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싶어요.’ (7929)

21) 타인의 기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귀 기울여서, 2018년 11월 30일 (<https://ohou.se/projects/7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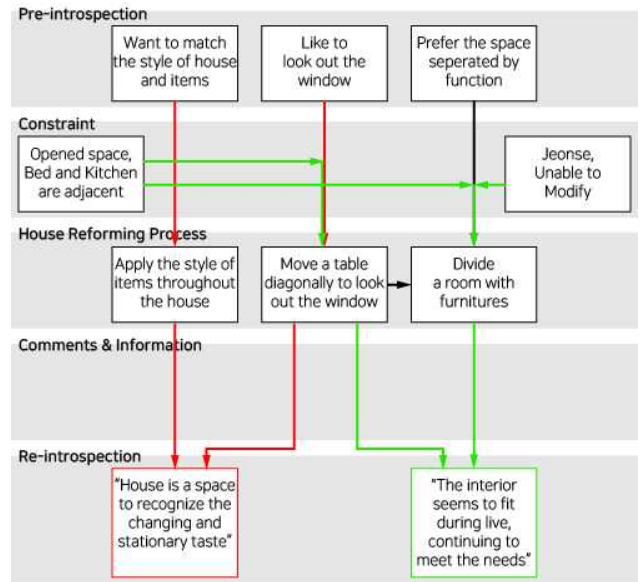


Figure 3. Narrative structure case 1

‘사례 2’²²⁾ (Figure 4. 참조)의 글쓴이는 기존의 ‘모던하고 심플한 스타일에 대한 선호’와는 다르게 ‘취향에 맞지 않는 내부마감’과 ‘전세’라는 제약에 의해 ‘기존 내부마감을 받아들임’으로 변화된 선택을 한다. 이는 ‘주거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함’이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주거와 자신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파악한다. 또한 ‘국악인으로써의 자신’을 바탕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악기를 전시’라는 선택을 한다. 자신을 나타내는 물건들과 새로운 취향을 ‘홈파티를 통해 타인과 공유하고 인정받음’으로써 ‘주거는 나를 가장 잘 나타내고, 타인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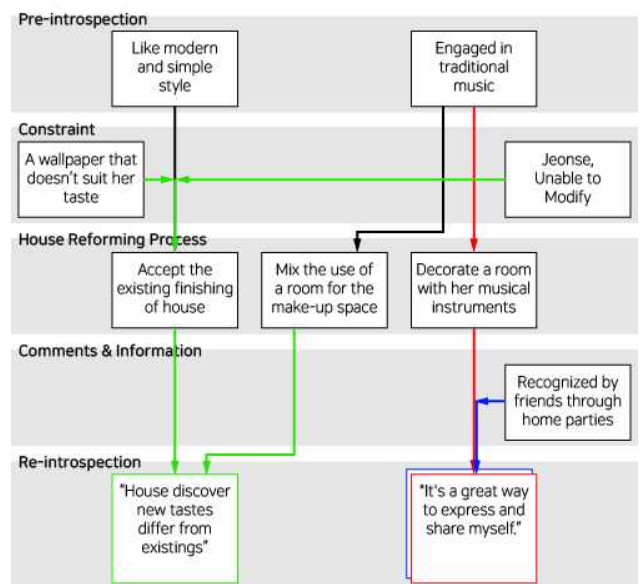


Figure 4. Narrative structure case 2

22) 한계, 몰랐던 내 취향을 발견하게 해주는 터닝포인트, 2018년 11월 29일 (<https://ohou.se/projects/7847>)

'사례 3'²³⁾ (Figure 5. 참조)에서 글쓴이는 '평소 친구들과에게 많은 도움을 받음'을 바탕으로 '홈파티에 적합한 집을 만들기'를 선택한다. 이는 기존의 '미국 드라마와 같은 방을 원함'이라는 생각과 결합되어 '폭신한 소파'와 '어둡고 아늑한 공간'이라는 선택으로 연결된다. 이후 '친구들과 홈파티를 즐기고 인정받음'으로써 '내 음식과 집에 대해 친구들이 칭찬할 때면 스스로가 자랑스럽다'의 결론에 이른다. 선택에 대한 칭찬이 주거를 매개로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홈파티 이후의 아늑한 공간은 '함께하는 삶만큼 혼자 있는 삶도 중요함'이라는 새로운 내적준거의 설정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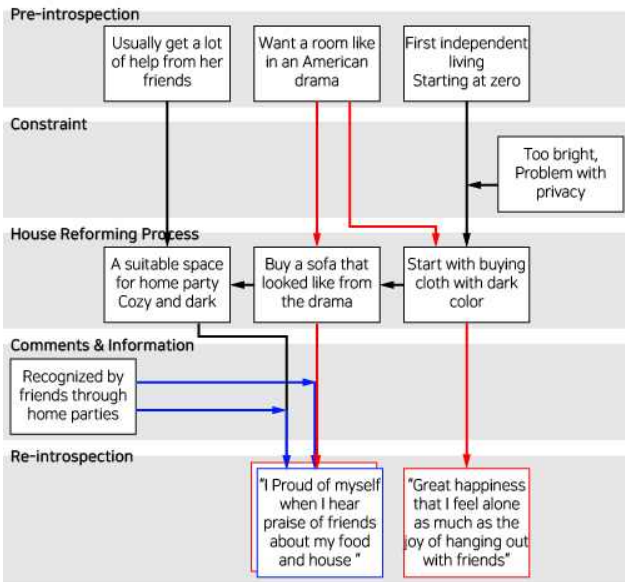


Figure 5. Narrative structure case 3

'사례 4'²⁴⁾ (Figure 6. 참조)에서 글쓴이는 '여행에서 봤던 카페의 분위기를' 선택하려 하지만 '노후선 원룸에서 처음부터 시작함'의 제약 때문에 '취향에 맞춰 조금씩 집을 채우기'로 한다. 점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 축적되어 주거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변화가 쌓여갈 때 마다 집과 자신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로 이어진다. 이는 집에 대한 태도를 자신에 대한 태도로 확장하여 동일시함과 동시에 서로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관계로 파악한 것이다.

사례를 통해 기존의 내적준거에 의한 선택이 주거를 매개로 축적, 변화되고 비언어적 소통을 거쳐 새로운 내적준거를 설정하는 것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거를 매개로 한 선택의 축적은 주거와 자아를 동일시한다는 점, 주거의 제약에 의한 선택의 변화는 주거와 자아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 주거에 관한 비언어적 소통을 자아에 관한 것으로 확장한다는

점으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사례들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50개의 사례중 자아확립과 재설정까지의 과정이 잘 드러난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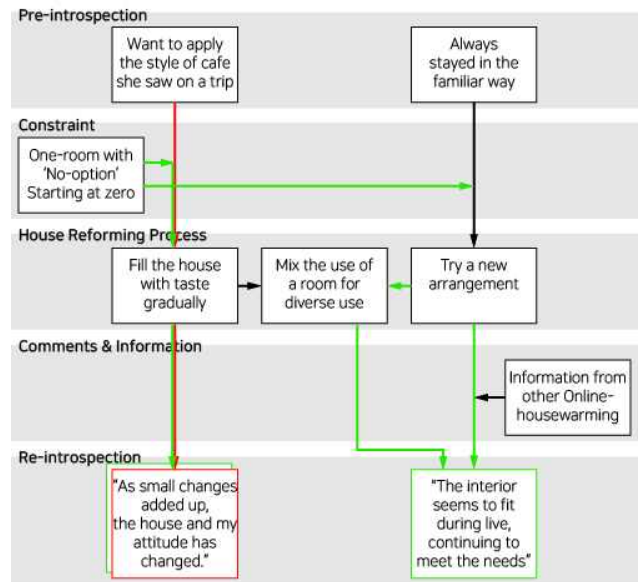


Figure 6. Narrative structure case 4

2.4 '온라인집들이' 에서 드러나는 현대사회에서 주거의 의미

온라인 집들이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기존의 내적준거에 의한 선택이 주거를 매개로 축적, 변화되고 비언어적 소통을 거쳐 새로운 내적준거를 설정하는 것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크게 3가지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현대인은 주거가 자신의 선택이 축적된 구체적 실체라는 점에서 자아와 동일시한다.(Table 3.의 (1) 참조) 온라인집들이 서사 구조에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취향과 기억들을 반영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사례의 경우 주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았다.²⁵⁾ 주거가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생각된다고 밝힌 사례들에서도 주거와 자아를 동일시하는 생각이 전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도시가 발달하고 주거가 담당한 대부분의 생산 기능이 도시의 다른 부분으로 이양되면서, 주거는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 온전한 재생산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대인은 주거가 가진 현실적 제약에 의해 일어난 선택의 변화를 주거와 자신의 상호작용으로 인식한다.(Table 3.의 (2) 참조) 온라인집들이 서사 구조에서 주거가 가진 제약에 맞춰 자신의 가꾸기 목표를 수정하

25) '집 꾸미기는 가장 나다을 수 있는 공간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7601), '집은 온전히 나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7627), '집을 완성시킬수록 왠지 나를 더덕덕 표현해내는 것 같은 기분이 짜릿해요.' (4774), '추억이 담긴 소품하나하나를 채울 때 마다 그때를 떠올리고 추억할 수 있는 곳이 제일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7603)

23) 집들이만 66번째, 2019년 01월 01일

(<https://ohou.se/projects/7929/detail>)

24) 나를 찾게 해준 공간 #원룸을투룸같이, 2018년 11월 22일

(<https://ohou.se/projects/7746/detail>)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 structure and thought on housing

Project ID	Narrative structure	Thought on housing, mentioned in conclusion			Self establishment, mentioned in conclusion
		(1) Equate	(2) Interact	(3) Relate	
2630	30 years old townhouse → Existing + Modified → Steady care → Interest of others		●	●	Need a steady interest in my life
3117	Depression → Overcoming with new attempts → Information from 'O house' → Gradual Reforming		●	●	Want to live adventurous lifestyle
3751	Want to live minimal → Opened space → Accepting existing style → Obtain the intended space	●			Will live happily everywhere
4588	Living like travel → Define second floor as new purpose → Thing from travel → Seasonal change	●	●		Happiness is at this moment
7478	Rented one-room → Divide with partition → Arranging own stuffs all over the place	●			Become to love my own mood
7567	Travel as hobby → House with memories of travel → Need to take care of	●			Feel gratitude to my parents
7603	Narrow double-story → Cats and things with memories → Insufficient storage → Store with shelves	●	●		Realize the importance of memories
7709	Dark mood of house → Friends pick a color for her + work space in kitchen → space fits well	●		●	Living a mentally stable life
7746	Trip after leaving school → Taste found on travel → No-option one-room → Gradual Reforming	●	●		Small changes gather to change me
7828	Experimental reforming → Rented one-room → Compromised reforming	●	●		I can change as I want to
7847	Unwanted finishing style → Accept the existing style → Finding new taste → Share with friends	●	●	●	Love myself rather than marriage
7929	Want to serve friends a dinner → Dark cozy house → Enjoy home-party → Be comfortable alone	●		●	World of living alone and together
8094	Small rented one-room → Bright wood color to make it look wide → Match well with her stuffs	●			Want to continue my tastes
8127	Narrow one-room → White, wood, plants → Needed Purchase leads to taste	●		●	Want to fill myself with new tastes
8158	Old house → Economic difficulties → Reform house & furniture herself → Attachment to housing	●			Want to live a life of stability
8162	Want a house like cafe → Plants with vintage furniture → Sharing with others through Airbnb	●		●	Need a chance to show ourselves
8227	House with only the necessary → Minimal furniture → Reforming space as needed	●	●		It is important to be happy now
8325	Opened one-room → Divide space → Hobbies at the central table → Praise of friends	●		●	Life with what I like

나 가꾸기 과정이 점진적으로 조율되는 사례의 경우, 주거와 자신이 상호작용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²⁶⁾ 이는 주거를 자아의 구체적 실체로서 동일시하기 때문에, 선택의 변화로 인한 주거의 변화를 자아의 변화로 확장하여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집들이 사용자들은 자아와 주거가 상호작용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아와 주거가 계속해서 수정될 수 있는 개념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주거의 제약에 맞춰 자신의 취향과 생활방식을 완전히 바꾸거나, 반대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주거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²⁷⁾

셋째, 현대인은 주거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자신의 자아에 대한 의견으로 연관 짓는다.(Table 3.의 (3) 참조) 온라인집들이에서 게시물이 작성되기 이전 시점에 오프라인을 통해 타인들과 주거를 공유한 사례의 경우, 주거에 대한 타인들의 생각으로부터 자신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²⁸⁾ 주거는 자아와 타인 사이

에서 비언어적 소통의 매개로서 기능하면서 자아의 구체적인 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타인으로부터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때 타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미는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자아에 해당하는 내면적 기준으로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현대인의 자아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현실적 제약과 정보라는 외부세계에 대해 선택행위를 통해 자아를 구축해나가는 존재라고 할 때, 주거는 자아의 선택에 구체적 실체를 부여함으로써 자아를 확립하는 과정을 뒷받침한다. 자아의 선택에 구체적 실체를 부여하고 이것이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 주거는 자아와 동일시된다. 주거와 자아가 동일시됨으로써, 주거와 관련된 현실적 제약과 정보는 자아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인식된다. 현대인의 주거공간 가꾸기는 선택행위를 바탕으로 자아와 외부세계를 매개하는 과정이며, 자아의 확립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현대인들이 자신의 주거를 타인에게 공개하고 주거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주거가 자아를 반영하고 외부세계에 드러내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현대인의 자아가 연속적인 선택행위를 기반으로 확립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거공간 가꾸기 서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아의 선택행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주거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현대사회는 선택의 주체인 자아가 현실적 제약과 정보로 대변되는 선택상황에서 선택행위를 통해 내적준거를

26) ‘그런 작은 변화들이 하루, 이틀 모이니 실내가 바뀌고 저도 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7746), ‘집을 꾸미면서 몰랐던 제 취향도 발견하고 제가 더 다듬어지는 느낌이었어요.’ (3117), ‘제가 변하는 것처럼 집도 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지금도 조금씩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고 있고요.’ (7828)

27) ‘내가 살 집은 남의 의견을 듣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와 어울리는 것들, 내가 편한 동선에 맞으면 되는 것 같아요.’ (7828), ‘이 벽지를 포인트로 살리는, 제게는 ‘엄청난 도전’을 해보자 싶었어요. 뭐랄까 기존의 제 취향을 포기하고, 이 포인트 벽지를 봤을 때 떠올랐던 ‘티파니에서 아침을’ 같은 느낌을 살려보기로 한 거죠.’ (7847),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변신시켜 주느냐에 따라 무수히 다른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8325)

28) ‘타고난 기질이 미니멀리스트가 되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에 파묻혀 사는 것이라 집에 놀러오는 사람들 마다 ‘집이 꼭 집주인을 닮았네.’ 라고 합니다.’ (5487), ‘집은 정말로 그 공

간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닮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보면서 제 성격과 취향이 보인다고들 해요.’ (3117)

구축함으로써 자아를 확립한다. 자아의 확장으로 여겨지는 주거공간은 선택행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현대인의 자아가 반영되는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자아와 주거의 관계를 질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온라인집들이’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온라인집들이 서사 구성요소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현대인의 자아확립과정과 대응된다. 기존의 내적준거에 해당하는 (1)가꾸기 이전의 인식과 경험, 선택 상황에 해당하는 (2)현실적 제약과 정보, 선택상황에 대한 선택행위에 해당하는 (3)주거공간 가꾸기 과정, 선택행위 이후 변화한 내적준거에 해당하는 (4)가꾸기 이후의 변화된 인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기존의 내적준거에 의한 선택이 주거를 매개로 축적, 변화되고 비언어적 소통을 거쳐 새로운 내적준거를 설정하는 것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사 전반에 걸쳐 자아의 선택행위에 주거가 개입되어있으며, 이로부터 글쓴이의 자아와 주거에 대한 생각이 3가지로 도출됨을 알 수 있다. (1)현대인은 주거가 자신의 선택이 축적된 구체적 실체라는 점에서 자아와 동일시한다. (2)현대인은 주거가 가진 현실적 제약에 의해 일어난 선택의 변화를 주거와 자신의 상호작용으로 인식한다. (3)현대인은 주거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자신의 자아에 대한 의견으로 연관 짓는다.

주거와 자아가 동일시됨으로써 주거와 관련된 현실적 제약과 정보는 자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인식된다. 현대의 주거공간은 그것을 가꾸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선택행위를 통해 자아확립을 매개함으로써 현대인의 자아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REFERENCES

1. Kim, H. (1991). A Symbolic Interactive Approach to Housing and Self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48-49
2. Son, S. (1990).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on the Meaning of Dwell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6(2)
3. Ha, E. (2001). A Study on Perception of Family Conception of Koreans accordings to Family Values, Ewha Womans University, 16-18
4. Kim, T. (1993). The Family and Housing Planning,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37(4), 20
5. Jeong, J. (2003). Spatial Composition and its Active-Utilization of Sadaebu士大夫 house in the 16th & 17th Century, Kyonggi University, 119
6. Lee, K., & Jeon, B. (200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wealthy rural house plan type on cheon-nam region in the early mordern era, *Proceeding of Annual Conference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2)
7. Park, H. (2003). Study on the history of residential space affected by both social and cultural factors - focused on the residential area of upper & middle class in kyounggi

- province of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Konkuk University, 92-95
8. Yoo, J., & Cho, S. (2002). A Study on the transforming Characteristics and Indigenuity of the Urban Housing on Modernizing Period of Korea,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8(7), 61
9. Song, I. (1990). A study on the types of urban traditional housing in Seoul from 1930 to 1960, Seoul National University
10. Kim, S. (2006).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the spatial configuration and function in the public apartment unit : focused on the apartment of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since '1960,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1. Yang, Y. (2017). A Study on the Design Culture of Korean Middle-class home in the 90s : : Focused on the advertisement of the monthly magazine <House full of happiness>, Konkuk University, 63
12. Lee, J., Yi, H., Park, J., & Yoon, C. (2002).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s for the New Lifestyles in One-person Officetel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55
13. Yoon, S. (2016). Self-presentation of instagram users : a dramaturgical analysis, Kyung Hee University
14. Choi, J. (2006). A Basic Study on the Uniformity of Apartment Dwelling and Handling Measur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5. Kang, J. (2008). Types of housing consciousness and housing needs : focused on Seoul and metropolitan residents, Yonsei University
16.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University
17. Baudrillard, J. (1998). *The Consumer Society: Myths and Structures*, SAGE
18. Cooper, C. (1971). *The House as a symbol of self*, Institute of Urban & Regional Develop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131
19. Ahn, K. (2001). *Self realization and Korean societ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 Lim, H. (2003). *Social Change and Values in Korea*, Nanam
21. Cho, H., Kim, J., Lim, D., Park, B., Kim, J., Moon, O., & Kim, E. (1997). *Sex, Family, and Culture: An Anthropological Approach*, Jipmoondang
22. Jeon, N. (2009). *Microhistory of Korean housing*, Dolbegae, 151
23. Jeon, N. (2010). *Spatial history of Korean housing*, Dolbegae, 113
24. Jeon, B., & Kwon, Y. (2012). *History of Hanok and Korean Houses*, Dongnyuk

(Received Feb. 15 2019 Revised Mar. 19 2019 Accepted May 16 2019)